

보도시점 2023. 11. 30.(목) 12:00  
(2023. 12. 1.(금) 조간)

배포 2023. 11. 30.(목) 09:00

## 과기정통부-조달청, 차세대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입찰 공고 착수

- 차세대발사체 공동 설계, 총괄 주관 제작 등 역할 수행할 체계종합기업 선정 본격 착수 -
- 입찰 규모 9,505억원, 나라장터를 통해 11월 30일부터 사전규격공개 시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입찰 절차를 11월 30일부터 착수한다.

차세대발사체는 저궤도 대형 위성·정지궤도 위성 및 달 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개발되며, 누리호와 비교해 수송 능력이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2030년 1차 발사(차세대발사체 성능검증위성), 2031년 2차 발사(달 연착륙 검증선), 2032년 3차 발사(달 착륙선)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총 2조 132억원이 발사체 및 발사대 개발, 장비·시험시설 구축 등에 투입된다.

체계종합기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과 함께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 공동 설계,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및 발사 운용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사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상용 발사 서비스도 함께 준비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우주발사체 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를 통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을 심의·확정하였다. 또한 선정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달청이 입찰 과정을 주관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체계종합기업의 총 입찰 규모는 9,505억원('24~'32)이다.

오는 11월 30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사전규격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체계종합기업 공고 절차에 착수하며, 약 10일간의 사전규격공개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대한 입찰 참여 기업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계획이다.

입찰 공고는 12월 중순부터 최소 40일 이상 진행되며, 2024년 2월 말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주관연구개발 기관(항우연) 간 협상(최대 25일)을 거쳐 2024년 3월 내 체계종합기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참가 자격 기업 설명회,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 입찰 관련 절차·서류 검증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조달청은 제안서평가 등을 포함한 계약 전 과정을 주관하게 되는데, 국가계약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관리시스템(평가위원선정)’과 ‘e-발주시스템(제안서평가)’을 활용하여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발사체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기술과 우주 산업의 범위를 크게 확장할 수 있어 성공적인 개발과 발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술개발 역량 및 사업 수행 의지가 높은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조달청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대형국책사업으로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모든 조달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	책임자	과 장	김기석 (044-202-4640)
		담당자	서기관	김미미 (044-202-4644)
담당 부서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책임자	과 장	박철웅 (042-724-7236)
		담당자	사무관	김애나 (042-724-7240)